

텍스타일 테크놀로지와 예술을
접목시킨 공학과 디자인의 조화

의류디자인학과

Department of Textile & Clothing Design



<http://tc.khu.ac.kr/>



소비자의 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디자인 교육

의류디자인학과는 텍스타일 테크놀로지와 예술을 접목시켜 공학과 디자인의 조화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 텍스타일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테크니컬 디자이너, 머천다이저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둡니다. 정원은 37명으로 학생들에게 거의 비슷한 비율로 입학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는 의류 디자인이 갖는 학문적 특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미술 실기가 준비된 학생은 높은 감도의 디자인 능력을 바탕으로 전공수업에 임할 수 있으며, 비실기 학생은 인문학적 지식과 논리적 사고력을 융합하여 트렌드를 해석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창의적인 텍스타일·패션 디자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의류디자인학과는 소비자의 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텍스타일 디자인과 패션 디자인 교육을 기본으로 하되, 생산성과 경제성 개념을 융합한 토털 디자인 능력을 배양하고, 소재기획, 의류상품기획, 무역실무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디자인 머천다이저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둡니다. 이에 텍스타일 디자인 교육 및 마케팅 무역관련 교육을 심도 있게 진행하는 것은 물론, 디자인 CAD 및 3D 가상착의 시스템을 교육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 인재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의 정점, 졸업작품 패션쇼

의류디자인학과 교육 과정의 정점은 4학년 2학기에 진행되는 졸업작품 패션쇼입니다. 디자인 소재 개발, 패턴제작 및 구성, 스타일링에 이르기까지 4년 학습의 결과물을 직접 제작하고, 유명기획사 및 전문 모델과 협업하여, 새빛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센터, 보테가 마지오, 섬유센터 등 스테이지에 자신의 작품을 올리는 감동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재학생들이 전국 대학생 니트 패션쇼에서 3년 연속 대상 수상의 쾌거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텍스타일대전, 국제니팅아트 공모전, 제로웨이트 공모전 등에서 매년 우수한 수상 성과를 내고 있을 정도로 출중한 디자인 능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깊이 있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글로벌 감각을 고취시키는 특별 프로그램

선배와 후배들 사이의 적극적인 경험 공유의 결과인바, 경희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와 최대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학생들의 글로벌한 감각 및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세계 각국의 우수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어 교환학생제도를 운영 중인데, 의류디자인학과는 매년 교환학생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적인 패션아트스쿨과 MOU를 체결하여 방학을 이용한 해외연수프로그램과 사회맞춤형 융합교육과정인 '글로벌패션MD산학콜라보레이션' 트랙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학연 교류를 통한 산업체 인턴십프로그램 운영과 패션산업 종사 실무자 초청 강연을 통하여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패션 관련 대기업 및 내셔널 브랜드로의 진출

삼성물산 제일모직, 코오롱 FNC, LG패션, 이랜드, 한섬, 신세계인터내셔널, 두산, 세정 데상트, 준지, 지오다노, 뉴에라 등 패션 관련 대기업 및 내셔널 브랜드에 다수의 졸업생이 텍스타일·패션 디자이너 및 MD로 진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3대 빅 벤더(세아상역, 한세실업, 한솔무역)를 비롯한 많은 수의 벤더 및 에이전트 회사에서 MD, MR, 테크니컬 디자이너 등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신세계백화점, GS홈쇼핑, 롯데홈쇼핑, 쿠팡을 비롯 SHOPEE 등 글로벌 E-커머스 회사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무역 및 유통산업 현장에서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디자이너 브랜드를 만든 유명 졸업생들

의류디자인을 전공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이름을 건 디자이너 브랜드를 만드는 일입니다. 졸업생 중 EENK의 대표 디자이너 이혜미가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고, 수수무(김도영), MODERN ALCHEMIST(배금주) J,RIUM(조오

륜), FACTORIAL LABEL(양혜진), MMD(김지애), MISSUE(김지혜), EPIPHANY(윤신혜) 등은 졸업생으로써 자신만의 디자이너 브랜드를 통해 디자이너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패션계에서 이미 연예인 만큼 잘 알려진 패션디렉터 조준우, 비주얼 디렉터 안정희를 비롯하여 스타일리스트 구동현도 경희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동문입니다. 또한,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SOONIL의 대표 디자이너 권순일과 영국 쉐빌로우 CAD & THE DANDY에 입성한 최초의 한국인 테일러 김동현은 글로벌 디자이너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타 대학의 의류 관련학과와 차별되는 특징

경희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는 패션디자인의 근간이 되는 텍스타일 디자인 교육에 중점을 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재 기획, 텍스타일디자인^{1,2}, 염색 및 염색공예, 서피스프린팅, 텍스타일 가공, 핸드프린팅 등 소재 관련 수업이 심도있게 진행되므로 차별화된 패션디자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업에 종사하는 겸임교수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어 실제 패션 실무와 연결된 현장 밀착형 기업연계 교육이 가능합니다.



비실기 학생이 실기수업을 따라 가기 어렵지 않을까요?

의류디자인은 대표적인 응용 실용 학문입니다. 미술 실기능력을 요하는 디자인드로잉 등은 기본기를 갖추고 있다면 보다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겠지만, 이런 과목은 일부이며, 이 또한 훈련과 연습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기수업이 전통적인 수작업보다는 컴퓨터드로잉 즉, CAD시스템이나 3D가상착의 시스템 등의 테크니컬 장비 사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해석하고 예측하는 통찰력 및 논리적 사고를 통해 감각을 키우는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누구나 훌륭한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